

55년만의 첫만남

새날이 밝았다



5536

UM00005536

현대

통일부



KOREA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Information Center
On North Korea

<http://unibook.unikorea.go.kr>

“반갑습니다”

“7천만 겨레가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반세기 동안의
불신과 대결의 관계가 화해의 관계로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먼길을 오셨습니다”

“6월 13일은 역사에 당당하게 기록될 날입니다.
이제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남북공동선언, 통일의 초석입니다



불신과 대결, 긴장과 반목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밝았습니다.

온 민족의 통일 열망과 남북 두 정상의 역사적 소명감이
55년 민족분단사에 새 획을 그은
위대한 합의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실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남북간 상호비방을 중지하고, 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 우리가 해결해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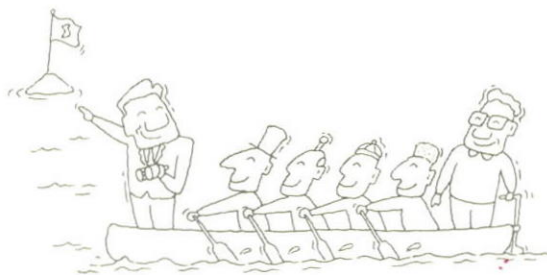
55년전 분단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분단을 해결할 당사자는 우리입니다.

남북한은 대화와 협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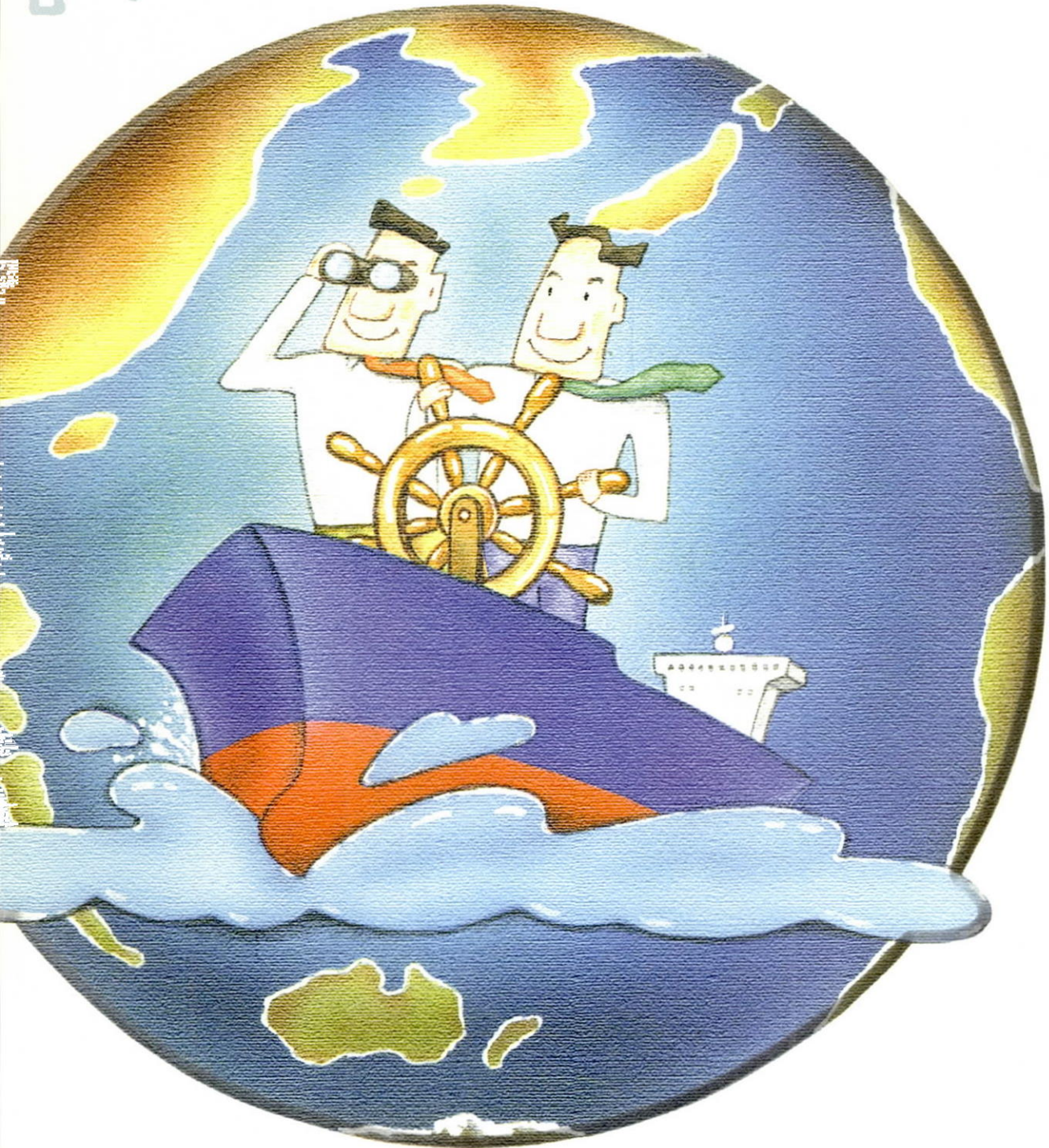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한의 노력에
국제사회는 힘찬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주'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북공동선언 ①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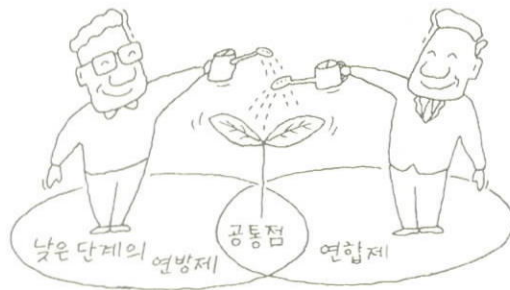
통일의 이정표,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남북관계의 현실로 볼 때
당장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이제 남과 북이 통일방안에 대한 접점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가자는
우리의 '남북연합'과 유사합니다.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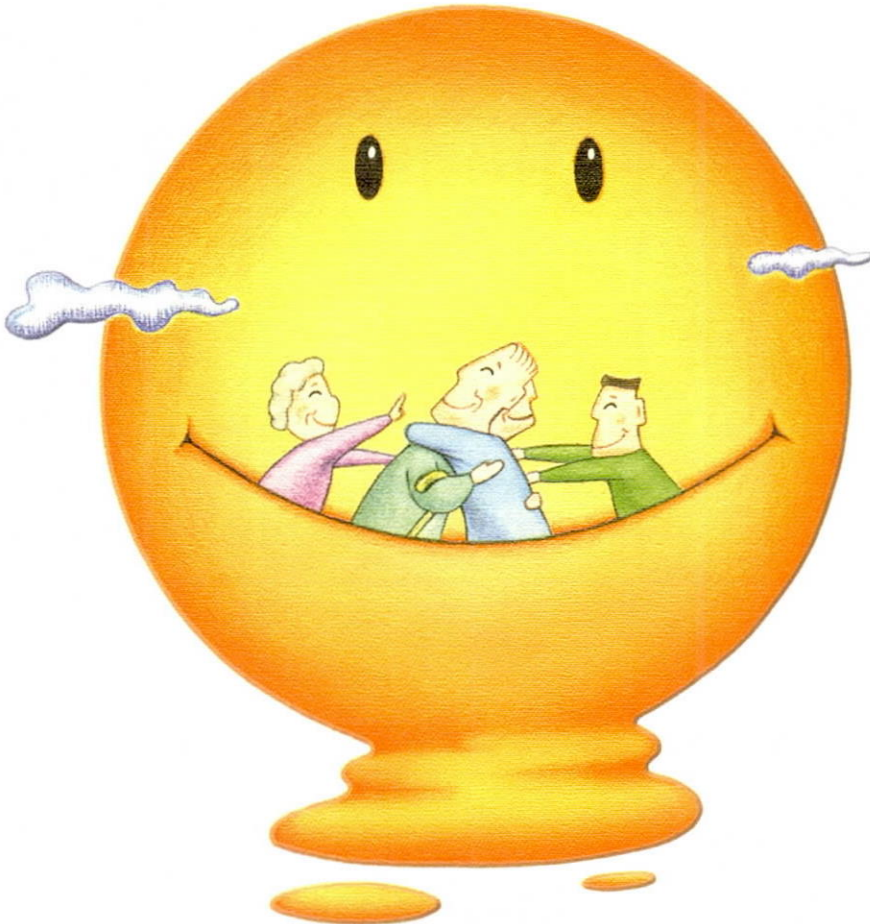
이산의 아픔, 더 이상 없습니다

꿈에도 잊지 못하던 헤어진 가족, 이제 만날 수 있습니다.

생사를 몰라 애를 태우던 가족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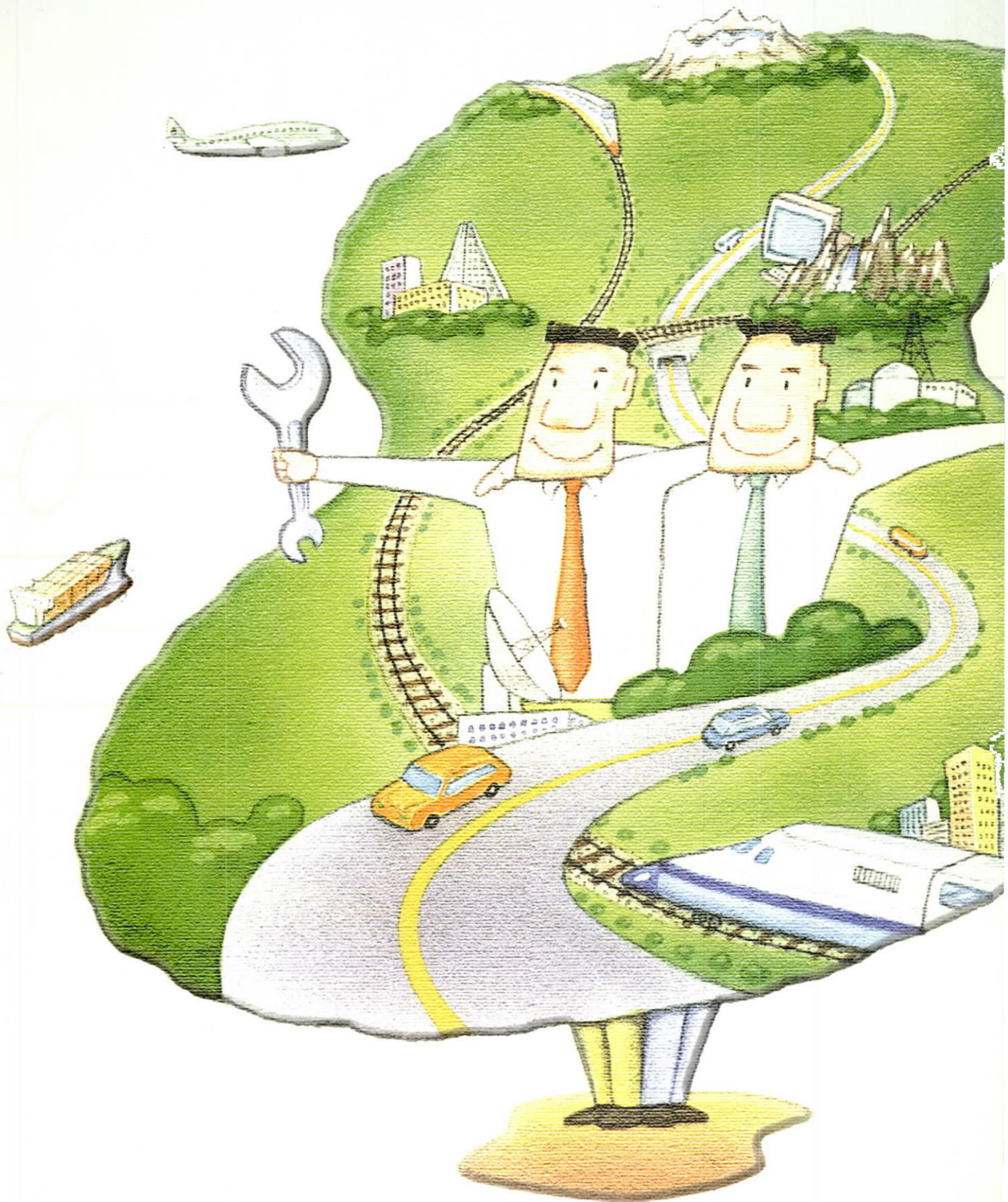
8월 15일 무렵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가슴에 묻은 한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사는 세상, 남북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7천만 겨레가 부르는 화합의 아리랑



만들어 갑니다

남북공동선언 ④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세상은 넓고, 남북이 함께 할 일은 많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은 폭넓은 교류의 물꼬를 텃습니다.

상호이익을 만들어 내는 경제공동체

자유롭게 왕래하는 생활공동체

동질성을 확인하는 문화공동체

한반도는 7천만 겨레가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마당이 될 것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새역사를



남북공동선언 ⑤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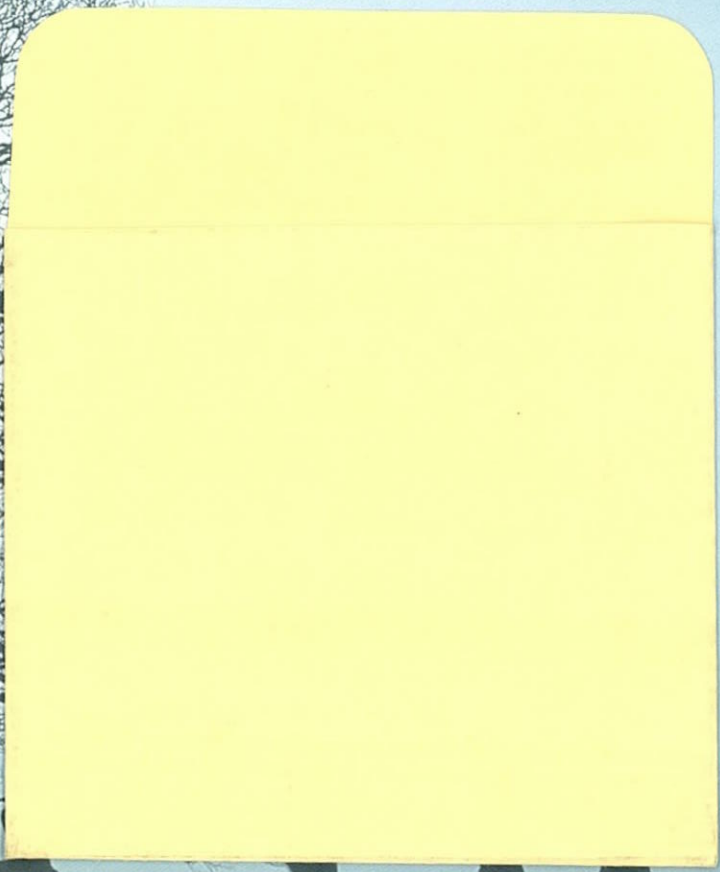
함께 만들어 갑니다

한민족 새역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남북대화가 지속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실현될 것입니다.

이제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차분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www.unikorea.go.kr